



국내

셀트리온, 영국서 램시마 '부당판촉' 적발... "판매 영향은 없어" (29일, 디지털타임스)

- 영국제약협회 등 셀트리온 파트너사 부당판촉 행위 지적
- 해외 파트너사들이 적극적인 판촉활동 중에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일상적 사건

녹십자 '3세 경영', 국내 첫 '美 독감백신 수출' 팔 걸었다 (30일, 머니투데이)

- 4가 독감백신 앞세워 1.8조 美 시장 진출 준비...허은철 사장이 진두지휘
- 미국시장은 3가 독감백신에서 4가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 중으로 지금이 현지 시장을 파고들 적기
- 미국 시장은 의약품 기준이 높아 4가 백신이 실제로 수출될 경우 현지 임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임상 단계는 현지 당국과 논의할 것

해외

밀란, 알레르기 치료제 폭리 비난에 "반값 복제약 내놓겠다" (29일, 머니투데이)

- 복제약의 가격은 기존 에피펜의 절반 수준인 한 상자(주사제 2개)당 300달러
- 현재 에피펜 한 상자 가격은 609.61달러로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550% 가까이 폭등

베링거 인겔하임, 조현병 치료제 개발 제휴계약 (30일, 약업신문)

- 덴마크 약물전달기술 생명공학사 사니오나와 파트너십
- 사니오나측은 이에 따라 500만 유로의 선불금을 포함해 최대 9,000만 유로를 계약성자금으로 수취
- 양사의 협력으로 개발된 제품이 발매될 경우 최대 3,500만 유로의 발매성과금과 함께 순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로열티를 건네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보장